

진혼

장정현

아득히 먼 옛날의
고개를 헤아리면
갈라진 대지의 상흔처럼
매마른 무언가가
목젖을 갈라
저며오곤 한다

전장의 검은 별
생명을 수놓아
이 땅에
죽음이라는 꽃을 피우니

흩날리는 함성
흩뿌리는 피
흩어지는 생명

꽃과 가장 가까이
꽃에 맞서 싸우며
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화원에는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영웅의 지휘 아래
스스로 조율하는 심장
앳된 얼굴
애늙은 얼굴
애달픈 얼굴
모두
꽃에 입을 맞추고

별과
모래가 있는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스러져갔다

총칼에 뿌린 피와
충(忠)에 뿌린 피가
어찌 뜨겁지 아니한가?

그들이 잠들어 있는
이름 없는 어떤
모래의 언덕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총열은
당신께서 지켜내던
일자진(一字陣)의 형상
숭고한 그 충심
정의로운 신념

그들이 잠들어 있는
이름 없는 어떤
모래의 언덕에
한없이 평화로운
나의 시를 한 줌 꺾어
고하고 싶다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는
당신의 손에 지켜졌으니
모래에 시간에 묻힌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손을 거쳐
영원하다고

